

청소년 문제행동과 개인 및 가족관련변인

조 윤 정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김 경 신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본 연구는 현재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문제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개인적 변인과 가족관련변인(가족관계변인, 가족기능성 변인)에 따라 청소년 문제행동은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분석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청소년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현재 청소년기에 있는 광주지역 고등학교 1,2학년 남학생 4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 중 총 410명의 질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조사도구로는 자기보고식으로 답하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AS/PC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청소년 문제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개인적 변인과 가족관련 변인에 따라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GLM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으로 Duncan의 다중비교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문제행동유형별 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전체 410명 중 409명(99.8%)이 문제행동을 일으킨 경험이 있으며, 문제행동에 대한 각 하위영역에서 문제행동 경험으로 도덕적 문제행동 401명(98.8%), 음성적 문제행동 396명(96.6%), 물질적 문제행동 397(96.8%)이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공격적 문제행동은 298명(72.7%)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늦은 귀가, 컨닝, 음란물 접촉, 욕설 등도 80% 이상이 경험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각 문제행동 유경험자의 경험 횟수 조사에서는 낮은 귀가, 음란물 접촉, 무단으로 여차친구와 여행, 욕설 등에서 '많다'라고 응답한 빈도가 3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흡연 56.6%, 절도 68%, 구타 73.3% 등으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나 청소년 문제행동의 심각성을 나타내주고 있으며 가출 15.4%, 자살기도 19%, 자해행위 21.7%, 절취 21.2% 등도 비율은 낮으나 문제행동의 성격상 주목할만한 비율이라 할 것이다.

둘째, 관련 변인에 따른 청소년 문제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를 살펴보면, 문제행동유형 모두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으로는 개인관련 변인의 경우 충동성과 우울성, 성적, 성적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 이었으며 가족관계 변인으로는 형제관계, 가족기능성 변인의 경우는 건강·유능성, 표현성 이었다.

개인관련 변인인 자아존중감이나 가족관계변인인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는 본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가족기능성 변인이 중요한 변인으로 부각되었다.

셋째, 청소년 문제행동에 미치는 주요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교성적, 충동성, 형제관계, 가족의 건강·유능성, 가족의 표현성 등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인들이 청소년 문제행동을 24% 설명해 주고 있다. 즉 학교성적이 나쁠수록, 충동성향이 강할수록, 형제관계가 좋지않을수록, 가족의 건강·유능성 및 표현성이 없을수록 문제행동이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제행동과 개인 및 가족관련 변인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 문제행동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서는 현재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및 개선책으로 개인의 인성교육, 가족관계의 올바른 개선 및 가족기능성 증진을 위한 개인 및 학교, 사회의 공동의 노력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구체적인 노력으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인성교육 프로그램, 성적위주의 입시체제교육의 개선 및 탈피, 그리고 건강한 가족 만들기 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청소년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리라고 본다.